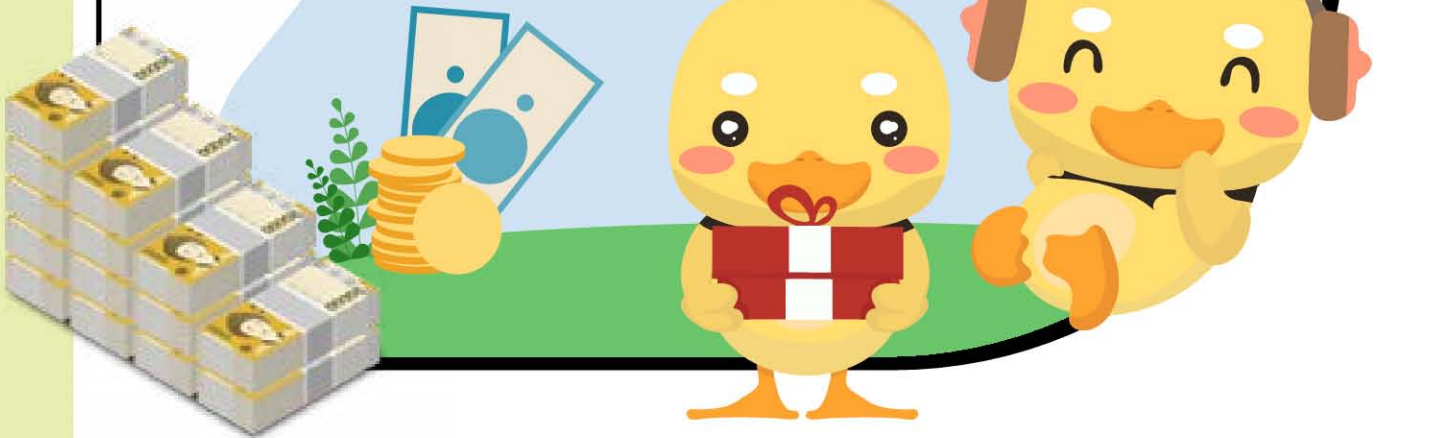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방역요령 등을 게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축산 농장 ‘신발 소독조’ 소독 효과 높이려면?

장화 신고 제자리걸음 5회
소독액은 2~3일 주기로 교체

신발 소독조는 축사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설치되어 오염균을 막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축사 방역을 위해 작업자는 축사로 들어가기 전 내부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장화를 소독해야 한다. 특히 신발 소독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우므로 농장에서는 신발 소독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오염균의 축사 유입을 사전에 막아야 가축 질병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먼저 작업자는 축사 내부에 출입할 때는 축사전용 장화로 갈아신어야 하며, 용무를 다 보고 축사에서 나올 때 분변이 묻은 장화를 깨끗이 소독해야한다.

신발 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깊이로 준비하며, 소독조에 장화를 담고고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장화가 소독액에 충분히 잠기게 해 오염균을 제거한다.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염된 경우(대장균 오염도가 50x10⁶/ml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에 담가야 한다.



**신발 소독
간편 팁**

신발 소독조 옆면에 희석배율에 따른 물의 양을 미리 표시해 두면 편리하다. 소독액은 2~3일 간격으로 바꾼다. 희석된 소독액은 시간이 지나면 점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두지 말고 교체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희석해서 사용한다.

장화 소독 전과 후 대장균 검출률 비교



신발 소독조의 소독액이 유기물에 오염되면 소독 효과가 낮아지므로 소독액이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신발 소독조의 소독 효과를 높이려면, 소독액의 희석배율과 교체 주기 등을 알맞게 관리해야 한다.

소독제를 희석할 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적정 배율을 잘 지켜야 한다. 4도(°C)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희석배율을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고농도 기준으로 맞춘다.